

1. 다음 중 구석기 시대 유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경기 연천 전곡리에서는 아슐리안 주먹도끼를 비롯하여 방대한 석기가 출토되었다.
- ② 부산 동삼동에서 출토된 조개 가면은 국자 가리비에 사람의 눈과 입 모양으로 구멍을 뚫은 형상으로, 집단의 공동체 의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③ 충북 제천 점말동굴에서는 사람 얼굴을 새긴 동물의 뼈가 출토되었다.
- ④ 평안남도 상원 검은모루 동굴에서는 주먹도끼와 외날찍개가 출토되었다.

[정답] ②

[선지 분석]

- ① 경기 연천 전곡리는 구석기 전기의 대표적 유적지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다. 이는 모비우스 학설이 깨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 ② 부산 동삼동 유적은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 유적지이다.(구석기X)
- ③ 제천 점말 동굴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새긴 털코뿔이의 앞발뼈가 출토되었다.
- ④ 상원 검은모루 동굴에서는 동물 화석과 다양한 펜석기가 발견되었다.

2. 다음 역사적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 우거왕이 살해되고,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 ㉡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축출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 ㉢ 한(漢)은 고조선 영토에 네 개의 군현을 설치하였다.
- ㉣ 예(濊)의 남려가 28만여 명의 주민을 이끌고 한(漢)에 투항하였다.
- ㉤ 고조선이 군대를 보내 요동도위 섭하를 살해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②

[선지 분석]

- ㉡ 서쪽 변경에서 세력을 확대한 위만은 기원전 194년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 ㉣ 기원전 128년 예의 군장인 남려가 위만조선의 우거왕에 반기를 들고 자신이 이끄는 28만의 인구를 이끌고 한의 요동 군에 복속하였다. 이에 한 무제는 예의 지역에 창해군을 설치하였다.
- ㉤ 한 무제는 기원전 109년 섭하를 사신으로 보내 고조선에 복속을 요구했지만 우거왕은 이를 거부하였다. 섭하는 고조선의 장수를 살해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후일 섭하가 요동도위로 부임하자 고조선이 군대를 보내 섭하를 살해했다. 이는 한이 고조선을 공격하는 발단이 되었다.
- ㉠ 고조선은 한과의 1차 접전에서 대승을 거두는 등 약 1년에 걸쳐 한의 군대에 맞서 완강하게 대항했으나 기원전 108년 결국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고 말았다.
- ㉢ 한은 고조선 멸망 후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4개의 군현(낙랑, 진번, 임둔, 현도)을 설치하였다.

3.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고국천왕은 한미한 신분의 을파소를 국상으로 등용하여 소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나) 광개토대왕은 왜국의 침략을 받은 신라를 도와 왜병을 낙동강 유역에서 섬멸하였다.

- ①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죽령 일대에서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그 판도를 넓혔다.
- ② 전연의 모용황의 침입을 받아 궁궐이 불타고, 남녀 5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 ③ 전진을 통해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하여 귀족의 자제들에게 유학을 가르쳤다.
- ④ 위(魏)의 장수 관구검에 의해 환도성이 함락 당했다.

[정답] ①

[자료 분석]

(가)는 고국천왕의 진대법 실시(194년), (나)는 광개토 대왕의 신라 구원(400년)에 대한 내용이다.

[선지 분석]

- ① 백제의 수도 한성이 함락된 것은 (나) 이후 장수왕 때(475)의 일이다.
- ② 고구려는 고국원왕 때인 342년 전연 모용황의 침입을 받아 국내성이 함락되는 피해를 입었다.
- ③ 고구려는 소수림왕 대인 372년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하였다.
- ④ 고구려는 동천왕 대인 244~245년 2년에 걸쳐 위나라 관구검의 침입을 받아 환도성이 함락되고 왕이 북옥저 방면으로까지 패주하는 피해를 입었다.

4. 밑줄 친 ‘왕’이 재위했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가야가 모반하였다. 왕은 이사부로 하여금 그들을 토벌케 하고, 사다함으로 하여금 이사부를 돕게 하였다. ... 이사부가 군사를 인솔하고 그 곳에 도착하니, 그들이 일시에 모두 항복하였다. 공로를 평가하는데 사다함이 으뜸이었기에 왕이 좋은 밭과 포로 2백 명을 상으로 주었다.”

- ①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국(于山國)을 정벌케 하였다.
- ② 건원(建元)이라는 신라 최초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③ 개국(開國), 대창(大昌), 홍제(鴻濟)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김씨 왕위 계승 체제가 확립되었다.

[정답] ③

[자료 분석]

대가야 정벌(562)에 대한 내용을 통해 진흥왕 대의 역사적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선지 분석]

- ①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한 것은 지증왕 대인 512년의 일이다.
- ② 건원은 법흥왕 대에 사용한 연호이다.
- ③ 신라는 진흥왕이 즉위한 뒤 551년(진흥왕 12) 개국(開國)으로 연호를 바꾸었고, 568년 다시 대창이라 하다가 572년 다시 연호를 홍제(鴻濟)로 바꾸었다.

④ 김씨의 왕위 계승 체제는 내물 마립간 이후 확립되었다.

5. 다음 승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원효는 다른 종파들 간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 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십문화쟁론』을 저술하였다.
- ② 의상은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화엄 사상을 확립하고,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의 원융사상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립이나 지배층 내부의 갈등을 지양하는 사회 통합 논리를 제시하였다.
- ③ 혜초는 인도와 중앙아시아 등의 성지를 순례하고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 ④ 진표는 당에서 현장으로부터 유식학을 전수받아 독자적 유식학과를 세웠다.

[정답] ④

[선지 분석]

- ① 원효는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십문화쟁론>을 저술하였고 화쟁 사상을 주장하였다.
- ② 의상은 당에서 돌아와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모든 존재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
- ③ 신라 출신으로 당나라에서 활동하였으며, 중국을 넘어 인도에까지 가서 불교를 공부하였다. 그는 인도와 중앙아시아(서역) 여러 나라의 성지를 순례하고 풍물을 생생하게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남기기도 했다.
- ④ 당에서 현장으로부터 유식학을 전수받아 독자적 유식학과를 성립한 인물은 원측이다. 진표는 점찰법회를 정착시킴으로써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고, 교종 5교 중 하나인 법상종의 조사로 알려져 있다.

6. 다음 밑줄 친 ‘왕’이 행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만약 왕이 처음과 같이 늘 공손하고 아끼며 정사를 부지런히 하였다면, 어찌 타고난 수명이 길지 않고 겨우 향년 50으로 그쳤겠습니까. 마침내 잘하지 못했음은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경신년부터 을해년까지 16년간은 간사하고 흉악한 자가 다투어 나아가고 참소가 크게 일어나 군자는 용납되지 못하고 소인은 뜻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고, 상하가 마음이 다르고, 군신이 서로 갈렸습니다. 옛 신하와 장수들은 잇달아 죽음을 당하였고, 가까운 친척이 다 멸망을 하였습니다.
-『고려사』-

- ① 백관의 공복(公服)을 제정하면서 관등에 따라 복색을 자색, 비색, 청색, 황색으로 나누었다.
- ② 대상(大相) 준홍(俊弘), 좌승(佐丞) 왕동(王同)을 모역죄로 숙청하였다.
- ③ 국가 수입의 증대를 위해 주현공거법을 실시하였다.
- ④ 노비환전법을 실시하였다.

[정답] ②

[자료 분석]

제시문은 최승로가 ‘오조정적평’의 일부로, 밑줄 친 ‘왕’은 광종을 의미한다. 최승로는 광종의 치적을 비판하며 전제 왕권을 배척하는 귀족 중심의 유교적 이념을 보여주었다.

[선지 분석]

- ① 광종은 자·단·비·녹의 4색 공복을 정하였다. 자·비·청·황은 신라의 공복색이다.
- ② 광종은 960년 평농서사 권신이 대상 준홍과 좌승 왕동 등이 역모를 꾀한다고 보고하자 이들을 숙청한 것을 시작으로 왕권 강화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호족 세력에 대해 과감한 숙청을 단행했다.
- ③ 광종은 주현을 단위로 공물을 징수하는 주현 공부법을 실시했다. 주현 공거법은 현종 때 실시된 제도로, 향리에게 과거 응시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 ④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실시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민을 해방시켜 주었다. 노비환천법은 속량된 노비 가운데 옛 주인을 경멸하는 노비를 다시 천민으로 되돌린 것으로, 성종 때 실시되었다.

7. 고려 시대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강감찬의 귀주대첩	㉡ 강동 6주 획득
㉢ 강조의 정변	㉣ 별무반 창설
㉤ 천리장성 축조	

- ① ㉡→㉢→㉠→㉣→㉤ ② ㉡→㉣→㉠→㉤→㉢
- ③ ㉢→㉠→㉣→㉤→㉡ ④ ㉢→㉡→㉠→㉣→㉤

[정답] ①

[선지 분석]

- ㉡ 고려는 거란의 1차 침입 당시 서희의 외교 담판을 통해 압록강 유역의 강동 6주를 획득했다.(993)
- ㉢ 목종의 모후인 천추태후와 외척 김치양이 불륜을 맺고 왕위를 빼앗으려 하자 강조가 군사를 일으켜 김치양 일파를 제거하고 목종을 시해한 후 현종을 즉위시켰다.(1009)
- ㉠ 거란이 강동 6주 반환을 요구하며 고려를 침공했으나(3차 침입) 강감찬이 귀주에서 이들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1019)
- ㉤ 천리장성은 거란의 3차 침입 이후 국경 지역에 축조되었다. 이 성은 1033년(덕종 2)부터 1044년(정종 10)까지 이어졌다.
- ㉣ 별무반은 기병 중심의 여진족을 상대하기 위한 특수부대로 숙종 대인 1104년에 창설되었다.

8.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선왕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이다. 올해년 9월 정유일에 출생하였다. 성품이 총명하고 굳세며 결단력이 있었다. 이로운 것을 일으키고 폐단을 제거하여 시정에 그런대로 볼 만한 것이 있었으나 부자(父子) 사이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오랫동안 상국(上國)에 있었는데, 스스로 귀양 가는 욕을 당하였다. 왕위에 있는 지 5년이며, 수(壽)는 51세였다.

-『고려사절요』-

- ① 서경에 대화궁을 짓고 그 안에 팔성당을 설치하였다.
- ② 중앙 교육 기관인 국자감을 ‘국학’으로 개칭하고,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 ③ 유인우로 하여금 쌍성총관부를 비롯한 철령 이북의 땅을 무력으로 수복하게 하였다.

④ 원나라에 만권당을 설치하여 고려의 학자들이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하였다.

[정답] ④

[자료 분석]

계국대장공주(충렬왕의 비)의 아들이라는 내용과 부자 사이의 부끄러운 일(중조 사건) 등을 통해 충선왕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충선왕의 비는 계국대장공주)

[선지 분석]

- ① 서경에 대화궁을 짓고 팔성당(팔성을 모시기 위한 사당)을 지은 것은 고려 인종이다.
- ② 국자감은 충렬왕 때 일시적으로 원의 간섭을 받아 국학으로 개칭되었다. 양현고는 장학 재단으로 예종 때 설치되었다.
- ③ 공민왕은 1356년(공민왕 5) 추밀원부사 유인우를 동북면병마사로 임명해 쌍성총관부를 비롯한 철령 이북의 땅을 무력으로 수복하게 하였다.
- ④ 충선왕은 원나라 연경에 만권당을 설치하고 고려의 학자들이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했다. 그 외에도 재정 개혁(소금 전매제), 사림원 설치 등의 업적을 남겼다.

9.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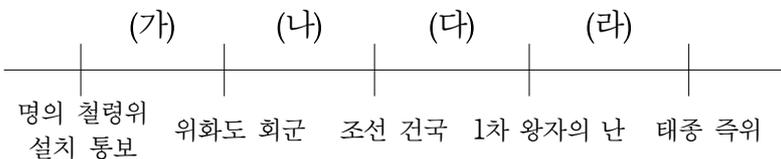
- 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편년체로 기술되어 있다.
- ② 유교적 입장에서 고구려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 ③ 원의 간섭을 받던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강조하였다.
- ④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신이사관을 배격하였다.

[정답] ④

[선지 분석]

- ①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기전체(본기·연표·지·열전)로 기술되었다.(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옳은 내용)
- ②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본기는 삼국 역사를 균형 있게 기록하였으나 연표, 지, 열전 등은 신라사에 치중하여 신라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 ③ <삼국사기>는 원 간섭기 이전인 고려 전기(인종)에 편찬되었다. 원 간섭기에 편찬된 대표적 역사서는 일연의 <삼국유사>와 이승휴의 <제왕운기>이다.
- ④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에 기초해 신이한 내용들을 배격하였다. 신이사관은 역사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강조하는 것으로, 일연의 <삼국유사>에서 볼 수 있다.

10. (가)~(라)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김용이 왕을 시해할 목적으로 흥왕사에 침범했다가 최영에 의해 격퇴되었다.
- ② (나) - 이성계 일파는 폐가입진을 명목으로 우왕과 창왕을 연이어 폐위시켰다.
- ③ (다) - 명은 표문의 글귀가 불손하다는 구실로 정도전을 명으로 압송할 것을 요구했다.

④ (라) - 박포가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

[정답] ①

[자료 분석]

보기는 여말선초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이다. 명의 철령위 설치 통보는 1388년, 위화도 회군은 1388년, 조선 건국은 1392년, 1차 왕자의 난은 1398년, 태종 즉위는 1400년의 일이다.

[선지 분석]

- ① 홍왕사의 변은 공민왕 때인 1363년에 일어난 사건이다. 정세운, 이방실 등이 홍건적을 격퇴하자 정세운의 공을 시기한 김용은 왕명을 위조해 안우, 이방실 등으로 하여금 정세운을 죽이게 하고 그 죄를 뒤집어씌워 모두 죽였다. 그리고 홍왕사의 행궁에서 거처하던 공민왕을 죽이고자 했으나 최영 등이 군사를 이끌고 행궁에 이르러 이들을 토벌하였다.
- ② 위화도 회군 이후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 일파는 우왕과 창왕을 신돈의 자식이라 하여 잇따라 폐위시키고(폐가입진) 공양왕을 옹립하였다.
- ③ 1395년(태조 4) 11월 조선은 고명과 인신을 청하러 명에 예문춘추관태학사 정충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명은 정충이 가지고 간 표문의 인사가 불손하다고 트집을 잡아 정충을 현지에 억류했다. 이에 이듬해 유구와 정신의를 파견했는데 이때도 표전문이 불손하다며 두 사신을 억류시킨 뒤 글의 찬자(정도전 등)를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1397년에도 있었다.
- ④ 박포는 제1차 왕자의 난에 큰 공을 세웠으나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조선 태조의 4남인 방간과 공모하여 이방원의 세력을 꺾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으나 결국 패하였다. 이 난의 평정 이후 정종은 방원을 세제로 삼았고, 같은 해 11월에 방원(태종)에게 양위하였다.

11. 밑줄 친 '이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제도'가 처음 경기도에서 실시되자 토호와 방납인들은 그동안 얻었던 이익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왕에게 폐지할 것을 건의했으나, 백성들이 이 제도가 편리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열조통기』-

- ① 호(戶)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 ② 운영 과정에서 유치미(留置米)는 증가하고 상납미(上納米)는 감소하였다.
- ③ 인정, 족징 등 폐단이 심각하여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 ④ 별공(別貢)과 진상(進上)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답] ④

[자료 분석]

제시문의 밑줄 친 '이 제도'는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된 대동법(1608, 광해군)이다.

[선지 분석]

- ① 대동법은 호가 아닌 토지 결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을 납부하면 되었다.
- ② 대동법의 운영 과정에서 점차 중앙 정부에 올리는 상납미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방관아에서 사용하는 유치미는 감소하게 되었다.

- ③ 인정, 족징 등은 군포의 폐단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는 균역법이다. 대동법은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였다.
- ④ 대동법을 통해 종래의 현물 징수가 미곡, 포목, 전화 등으로 대체되었으나 진상이나 별공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12. (가)~(라)의 설명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은 강원도 평창에 위치해 있으며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나) 충남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주심포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다) 금산사 미륵전은 다포양식과 팔작지붕으로 지어졌으며, 고려 후기에 권문세족의 지원을 받아 세워진 건물이다.
 (라) 법주사 팔상전은 다층 목탑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정답] ②

[선지 분석]

- (가)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은 강원도 오대산(평창군 진부면 동산리)에 위치한 고려 전기의 다각다층탑이다.
- (나)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다. 수덕사 대웅전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과 함께 대표적인 주심포 건축물이다.
- (다) 금산사 미륵전은 다포양식과 팔작지붕의 건물이지만, 조선 후기인 17세기에 만들어졌다. 17세기에는 불교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 금산사 미륵전 등의 불교 건축물들이 세워졌다.
- ㄹ. 법주사 팔상전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오층 목탑(다층 목탑)으로, 내부가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정유재란 때 불탄 것을 사명당 유정 스님이 복원하였다.

13. 다음 중 밑줄 친 ‘왕’이 재위했던 시기에 편찬된 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하의 뗏뗏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삼강이 그 수위에 있으니, 실로 삼강은 경륜의 큰 법이요 일만 가지 교화의 근본이며 원천입니다. ... 선덕 신해년에 우리 왕께서 측근의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 ‘간혹 훌륭한 행실과 높은 절개가 있어도, 풍속 습관에 옮겨져서 보고 듣는 자의 마음을 흥기시키지 못하는 일도 또한 많다. 내가 그 중 특별히 남달리 뛰어난 것을 뽑아서 그림과 찬을 만들어 중앙과 지방에 나누어 주고, ...’ 고 하시고 ... (후략)

- ① 『국조오례의』
- ② 『세종실록지리지』
- ③ 『향약집성방』
- ④ 『고려국사』

[정답] ③

[자료 분석]

제시문은 세종 때 편찬된 <삼강행실도>의 서문 내용이다. <삼강행실도>는 우리나라의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붙여 편찬하였다. 성종 때 언해본도 편찬하여 백성에게 보급하고자 하였다.

[선지 분석]

- ① <국조오례의>는 성종 때 국가와 왕실의 각종 행사에 필요한 의례의 규범을 정비·제정하여 편찬한 의례집이다.
- ② <세종실록지리지>는 단종 2년(1454년) 완성된 <세종실록>에 실려 있는 전국 지리지로, 군현 단위로 연혁·인물·고적·토지·호구 등 60여 항목을 기록하고 있다.
- ③ <향약집성방>은 세종 15년(1433) 유효통, 노중례 등이 편찬한 의학 서적으로,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정리하였다.
- ④ <고려국사>는 태조 4년(1395) 정도전이 서술한 역사서로, 고려 시대의 역사를 정리하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려 하였다.

14. 조선 후기의 과학 기술에 대한 서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연은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종법을 가르쳤다.
- ② 김석문은 저서 『역학도해』를 통해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 ③ 홍대용은 코페르니쿠스의 지구 자전과 공전을 설명한 『지구전요』를 저술하였고, 뉴턴의 만유인력설과 같은 서양의 과학을 소개한 『명남루총서』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 ④ 정약용은 요하네스 테렌츠의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제작하였다.

[정답] ③

[선지 분석]

- ① 박연은 조선 인조 때에 귀화한 네덜란드인으로,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종법을 가르쳤다.
- ② 김석문은 <역학도해>에서 지전설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장하여 우주관을 크게 전환시켰다.
- ③ <지구전요>와 <명남루총서>를 저술한 인물은 최한기이다. 홍대용은 <의산문답>, <주해수용> 등의 저서를 남겼다.
- ④ 정약용은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제작하고, 이를 화성 축조에 이용하였다.

15. 밑줄 친 '수호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번에 사절선이 온 것은 오로지 수호(修好) 때문이니 우리가 선린(善隣)하는 뜻에서도 이번에는 사신을 전위(專委)하여 수신(修身)해야겠습니다. 사신의 호칭은 수신사라 하고 김기수를 특별히 차출하고 따라가는 인원은 일을 아는 자로 적당히 가려서 보내십시오. 이는 수호조약을 체결한 뒤에 처음 있는 일이니, 이번에는 특별히 당상관을 시켜 서계(書契)를 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이 뒤로는 서계를 옛날처럼 동래부에 내려 보내어 예도로 옮겨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 ① 최혜국 대우가 인정되어 불평등조약으로 평가받는다.
- ② 거중조정을 규정하였다.
- ③ 양국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 ④ 해양 측량권을 부정하였다.

[정답] ③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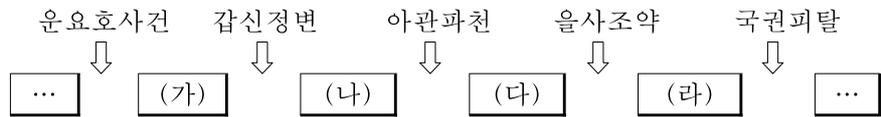
체결 뒤 수신사(일본에 파견된 사절단)로 김기수를 파견했다는 내용을 통해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 1876)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선지 분석]

- ①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제3국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으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에서 처음 인정되었다.
- ② 거중조정은 양국 중 한 나라가 제3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시 서로 도와야 한다는 규정으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에서 규정되었다.
- ③ 강화도 조약 9관에는 ‘양국 백성들은 자유롭게 거래하며, 양국 관리들은 간섭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 ④ 강화도 조약 7관에는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16. 다음은 어느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이 내용이 실린 시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북촌의 어떤 여자 중에서 군자(君子) 수 삼 인이 개명(開明)에 뜻이 있어 여학교를 설시하라는 통문(通文)이 있기에 놀랍고 신기하여 우리 논설을 삭제하고 다음에 기재한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정답] ③

[자료 분석]

제시문은 1898년 서울 북촌 부인들이 발표한 ‘여권통문’(여학교 설시통문)의 일부이다. ‘여권통문’은 근대 여권 운동의 3대 요소인 참정권·직업권·교육권의 목표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근대 여권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선지 분석]

운요호 사건은 1875년, 갑신정변은 1884년, 아관파천은 1896년, 을사조약 체결은 1905년, 국권피탈(한일 병합 조약 체결)은 1910년의 사건이다.

17. 다음은 어떤 문서의 일부이다. 이 문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조 한·일 양국 사이에 항구적이고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고하게 믿고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제4조 ...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상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① 러·일 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체결하였다.

- ② 체결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
- ③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고 감옥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 ④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창간하는 배경이 되었다.

[정답] ①

[자료 분석]

제시문은 1904년 2월 대한 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한·일 의정서의 일부이다. 이 조약은 일본군의 군사 요충지 사용권과 일본의 동의 없이는 제3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선지 분석]

- ① 러·일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자 대한 제국은 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1904. 1) 하지만 일본은 대한제국의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러·일 전쟁 발발 약 보름 뒤에 군사 전략상 필요한 요충지 사용·일본의 동의 없이는 3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였다.
- ② 장지연은 1905년 11월 체결된 을사조약에 항거해 <시일야방성대곡>을 발표하였다.
- ③ 대한 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 박탈은 기유각서(1909. 7) 체결에 따른 결과이다.
- ④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창간한 것은 1896년 4월의 일이다.

18. 다음은 어느 단체의 공약 중 일부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천하의 정의의 사(事)를 맹렬(猛烈)히 실행하기로 함.
- 2.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하여 신명(身命)을 희생하기로 함.
- 3. 충의의 기백과 희생의 정신이 확고한 자라야 단원이 된다.
... (중략) ...
- 9. 일(一)이 구(九)를 위하여 구가 일을 위하여 헌신함.
- 10. 단의를 배반한 자는 척살한다.

- ① 대한광복군단을 조직하여 자유시(스보보드니)로 이동하였다.
- ② 신한촌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 ③ 유희현 삼원보에 경학사와 부민단을 세우고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여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다.
- ④ 3.1 운동 이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이 조직하였다.

[정답] ④

[자료 분석]

제시문은 의열단의 ‘공약 10조’ 중 일부이다. 의열단은 ‘공약 10조’와 ‘5과괴’(총독부, 동양 척식 주식회사, 매일신보사, 경찰서, 일제 중요기관), ‘7가살’(조선 총독 이하 고관, 일본 군부 수뇌, 대만 총독, 매국노, 친일파 거두, 밀정, 반민족적 귀족)을 행동 목표로 삼았다.

[선지 분석]

- ① 자유시로 이동한 것은 밀산부 한흥동에서 조직된 대한독립군단이다.
- ② 대한광복군 정부는 권업회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과 이동휘를 정·부통령으로 수립한 정부 조직이다.
- ③ 삼원보에 경학사와 신흥강습소 등을 설립한 단체는 신민회이다.
- ④ 3·1운동 이후 강력한 무장 조직의 필요성을 느낀 김원봉, 윤세주 등은 만주 길림에서 신흥 무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의열단을 조직했다.(1919)

19. 다음 내용을 공동 선언한 정부의 집권 시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 (후략) ...

- ① 88 서울올림픽대회 개최 ② OECD 가입
③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④ 금모으기운동 전개

[정답] ①

[자료 분석]

제시문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발표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의 일부이다.

[선지 분석]

- ①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88 서울올림픽 대회 개최, 부분적 지방 자치제 실시, 북방 외교 추진 등이 있었다.
- ②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인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③ 7·4남북 공동 성명은 남북이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에 발표되었다.
- ④ 금 모으기 운동은 1997년 일어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으로, 김영삼 정부 말기와 김대중 정부 시기에 추진되었다.

20. (가), (나)와 같이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합의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1.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나) 1.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중략) ...
9.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 ① (가) - 해방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② (나) -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였다.
③ (가) - 상록수 부대를 동티모르에 파병하였다.
④ (나) -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정답] ④

[자료 분석]

(가)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발표된 6·15 남북 공동 선언문, (나)는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발표된 남북 기본합의서의 일부이다.

[선지 분석]

- ①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렸다.(2차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개최)
- ②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9월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 ③ 동티모르는 1999년 8월 주민투표에 의해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했다. 그 과정에서 독립을 반대하는 친인도네시아계 민병대의 활동으로 치안이 불안해져 유엔은 치안 유지를 위해 다국적군 파견을 결의하였다. 이에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상록수 부대가 파병되었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전면적인 지방 자치제 실시는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에 이루어졌다.